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77

2017. 4. 16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
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0:15

오늘의 주요기사

- 2 종교개혁 이야기
- 3 교회사역소식
- 4 청빙위원회 특집
- 5 목회칼럼
- 6 아기나들이, 권사월례회

교회 일정

- 4/17-18(주일) 평양남노회
4/19(수) 1/4 제직회
4/23(주일) 장애인 주일
4/30(주일) 어린이 주일/유아세례식
5/5(금) 무지개잔치
5/7(주일) 성찬주일/아버이주일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부활의 기쁜 소식이 백합 향기처럼 멀리 멀리 퍼져나가길.

마침내 이루어졌다네!

약속하신 그날
마침내 이루어졌다네

생명이 새롭게 된 날
하늘과 땅이 새 옷을 갈아입고
새들도 돌들도 나무들도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본 날

마침내 이루어졌다네!

사슬과 굴레들이 무너지고
갇힌 자가 풀려나며
슬픔들이 사라진 날

마침내 이루어졌다네!

건지 못해, 보지 못해,
애타하던 자들이
손잡고 뛰어 오고,
말하지 못해, 듣지 못해,
답답해하던 자들이
큰 소리외치며 달려오나니,

성전 기둥들이 춤을 추네
성전 지붕이 찬양하네
성전 벽들이 나팔로 노래하네
마침내 이루어졌다네!

나의 죄와 허물로
어둠 가운데 계셨던 주님

나로 인해 침 뱉음도
뽀뽀 맛음도, 찔림도
벗김 당함도 당하셨네

이른 아침 두려움과 떨림으로
찾아갔던 내게 말씀하셨네
“무서워말라”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며
어둠에서 벗어나며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네

마침내 이루어졌다네!

이제 나는 알았네
그 분이 내게 호흡주신 창조주 아버지
하늘에 빛을 주신 창조주 아버지
온 땅에 열매를 주신 창조주 아버지

이제 나는 전파하리

마침내 이루어졌다네!
마침내 하늘과 땅이 새로워졌다네!
마침내 생명이 새로워졌다네!

박원호 담임목사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종교개혁 이야기 3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2. 존 위클리프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기 전, 그 운동의 모태가 되는 움직임들이 유럽의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 중에서 12~16세기에 가장 널리 확산되고 오래 지속되었던 개혁운동을 하나씩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호에 소개한 발도파(Vaudois)에 이어 오늘은 롤라르파(Lollards) 운동의 정점에 있었던 존 위클리프에 대해 소개하겠다.

위클리프가 살던 14세기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백년전쟁(1337-1453)이 한창이었고, 흑사병(1347 이후)이 유럽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가톨릭 역시 '아비뇽 유수'(1305-1378) 이후로 대분열을 경험하는 등 유럽 전체가 거대한 혼돈에 빠져든 시대였다. 그러나 영적 영역은 물론 세속 영역까지 장악한 채 이 난관을 초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교황과 수많은 성직자들은 세속적 권력과 부를 추구하느라 눈이 멀었고, 극도의 부패와 향락에 빠진 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양떼를 돌보

라는 사명은 방치해버렸다. 그 결과 성도들의 영적 피폐는 극에 달했고, 삶 전체가 도탄에 빠졌다.

아비뇽 유수의 시기,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던 영국에는 프랑스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었다. 여기에 영국인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프랑스 왕가를 지원한다는 교황청 소문이 돌면서 영국 전역에 민족주의적 저항이 뜨겁게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1372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교수가 된 위클리프는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세속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교황과 교황청을 향해 다음과 같이 규탄했다.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다. 또한 참된 교회는 구원받도록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의 몸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반면 지상의 교회,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 속에 버림받은 유기자들까지 포함

하고 있어서 참된 교회와 동일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시적인 제도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거나 성직을 가졌다고 하여 이것이 그리스도가 머리인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다.”

위클리프는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강조했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는 유일한 안내서이자 교회의 유일한 법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위한 유일한 권위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성경을 최대한 널리 보급하기 위해 번역에 몰두했고, 그를 통하여 최초의 영어 완역 성경이 탄생하게 되었다.

위클리프는 교회가 청빈과 겸손으로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교회개혁을 부르짖었는데, 이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직까지 내려놓아야 했다. 이후 위클리프는 루터워스에서 목회하다가 하나

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훗날 교권 주의자들은 그의 사체를 무덤에서 꺼내 화형에 처했고, 그 재를 스위프트 강에 뿌렸다.

비록 위클리프의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강에 뿌려졌지만, '나는 끝내 진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그의 정신과 가르침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롤라르파(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라 개혁을 주장하다가 사제직을 박탈당한 이들의 공동체로 '가난한 설교자들'로 불림)에 의해 계승되었고, 이것이 훗날 보헤미아(현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박주영** 전도사



위클리프의 영어완역성경

더 바이블 (The Bible)

1.성경은 목적에 맞게 읽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경을 읽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안내나 지침서들이 상당수 출판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서적만큼 성경 읽기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만약 변화되지 않았고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면 성도는 성경을 읽는 분명한 목적과 의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적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며 해석하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다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문자적인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나 성경의 뜻이 그리 단순하지 않고 복잡적이며, 문자에 맞춘 단층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

고 그 의미들이 다층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문자적인 해석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읽는 것도 소중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며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단순하게 읽기보다는 읽고 통전적으로 이해하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성경은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즉 성경을 읽는 것이 자신의 삶에 활력을 주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적은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성도는 그 시대 성경의 저자들이 알려주기 원하는 하

나님을 체험하고 뜻을 헤아려 하나님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의 시대와 저자들의 삶의 방식들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사전자료를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성경을 읽어가면서는 자주 멈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읽기를 멈추고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탐구하고 이해하는 노력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다음의 사항들을 명심하여 실천한다면 좋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우선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것이다. 그리고 읽은 성경의 본문을 꼼꼼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성경의 본문이 다른 본문과 어떠한 연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서적과 연구자

료 및 성경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시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이러한 성경읽기를 위해서는 성경의 기초인 성경의 구성과 배열에 따른 이해와 주제 등을 차례차례 살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은석** 목사

〈더 바이블(The Bible)〉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읽어, 말씀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사랑나무

장애인 주일에



사랑나무에 전도사로 부임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제 마음을 사랑나무로 이끈 것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픈 갈증이었습니다. 어린이 하나를 환대하는 것이 곧 나를 환대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당시 존중받지 못했던 어린이와 자신을 사실상 '동일시'하신 주님을, 사랑나무 아이들과 함께 만나 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푸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 걸까요? 말이나 글이 제한되면, 설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교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다만 지금으로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제 속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최근 들어 조금 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되었고, 조금 더 진심을 담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진정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사랑나무 친구들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사랑나무에게—그리고 사랑나무와 함께 계신 주님께—뜨거운 사랑 흘려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채인 전도사

예배드라마

여섯 번째 예배드라마 '섬김의 왕'

메마른 잎사귀를 낙엽으로 떨구어냈던 나무의 그 자리에는 다시금 새로운 잎이 세상으로 고개를 살포시 내밀습니다. 맑은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되지 못하고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부활절 예배드라마가 벌써 여섯 번째 "섬김의 왕" 고난주일 화요일인 4월 11일 연습 현장을 찾았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예배드라마 출연진분들과 수인사로 눈웃음으로 반가움을 표하고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경건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룯기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확신하기를 바랐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출연진들과 부활절 예

배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낙심하고 좌절한 이 시대에 착하게 살아온 룯기처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시간과 연습으로 고난 주일을 보내고 부활 주일에 세 번을 드리는 예배드라마를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예배드라마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이 생각이 납니다. 해낼 수 있었다는 작은 사명감으로 은혜와 믿음이 깃든 곳, 연습을 마친 출연진 한분 한분의 마음에서 이처럼 그림처럼 우리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나님 손길이 되고픈 예배가 되고 교우님들 마음도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느낍니다.

함글함글

군선교

신병 교육대 진중세례식에서



벚꽃이 핀 4월의 하늘은 어디를 보나 화사한 봄이 와있음을 봅니다. 버스를 타고 화천으로 가는 길, 오늘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흰구름은 한마리 새가 되어 훨훨 나는 것 같고 한 마리 새는 구름이 되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칠성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북녘 땅은 아무 말도 없이 우리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조용합니다.

반쪽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이 정의이고 옳다는 세상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군선교에 나섰습니다.

주님의교회 군선교팀에서 사역하는 2017년 첫 신병 교육대 진중세례식이 7사단 신교대 다메섹 광현교회에서 235명 신병 훈련병에게 세례예식을 하였습니다.

입대를 하여 신병 훈련 중에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주님의교회에서 준비해간 성경책과 햄버거와 콜라와 세례선물 세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세례예식을 끝나고 햄버거를 먹는 모습에서 우리는 항상 작은 천사를 보는 것만 같음을 느낍니다.

2017년 전반기 세례식은 5월 20일 (토) 21사단과 6월 10일 (토) 22사단에서 세례예식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함글함글



청빙위원회 특집기사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2가지 ③

지난 호에 이어, 10년 만에 맞는 담임목사 청빙의 과정을 맞아, 청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청빙의 과정 자체가 주님의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고, 교회의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교인 각각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올하는 교회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주님의교회가 가졌던 창립정신을 새로 맞을 10년에 담기 위해서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교회의 표어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의교회가 기존 제도를 고수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를 앞서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이번 청빙의 과정 자체가 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래 내용은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뉴스앤조이, 2013)과 관련 자료를 발췌, 요약했습니다. **함줄함울**

목차

- ①청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 ②좋은 목회자란 어떤 목회자인가요?
- ③한국 교회의 청빙 방식은 어떤 게 있나요?
- ④**청빙의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⑤청빙 과정을 위해 영성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 ⑥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켜 보는 까닭은요?
- ⑦미션스터디란 무엇인가요?
- ⑧청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게 좋을까요?
- ⑨청빙에 대해 교회법과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⑩청빙 과정에서 교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 ⑪청빙 과정에서 가려야 할 것과 밝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⑫청빙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4.청빙의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계속)

지난 호에서 청빙의 단계가 크게 준비 단계, 본 단계, 결정 단계, 부임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준비 단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의했다. 준비 단계는 청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임하는 목회자와의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의사 결정 체계의 확정, 교회의 진단, 목회자상의 정립, 청빙위원회의 구성, 평가와 선정 기준의 정립 등을 진행한다. 또한 교인들의 영성 훈련으로, 청빙 절차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도록 인도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서 목회자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한다.

지난 호에서는 준비 단계를 통해 교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교회의 미래상을 논의한 후, 이 미래상에 적합한 목회자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논의했다. 주님의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한 제도는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교회 정체성의 지속을 위해 담임목사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지 그제도가 교회의 미래 그 자체는 아니다. 창립 당시 주님의교회가 교회의 회복을 위한 개혁적 제도로 한국 사회에 훌륭한 모범을 제시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회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깊이 성찰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서 새로운 개혁의 방향을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이번 청빙의 과정은 주님의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의미로 발현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방관하는 많은 교인들과 아직 교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한 청년들도 이 단계를 통해 교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이들로 하여금 교회의 미래에 주역이 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성장하는 교회는 교회에 대한 애정도와 참여도가 높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의사 결정 체계의 확정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되도록 모든 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and 공개적이며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 결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진 일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구성원 모두의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며,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결과에 대해서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한 결정임을 인정하고,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이후의 교회 일에서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의사 결정 체계는 청빙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청빙 공고, 청빙 기준의 합의, 목회자의 선발 과정과 최종 청빙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의사 결정 체계의 구성에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역할은 무엇이며, 위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교인 전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논의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청빙위원회의 정보 공개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최종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미리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일정과 방법, 의사 결정 과정이 미리 명확하고 투명하게 논의되고 결정되지 않으면, 후에 청빙 절차를 진행할 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의사 결정 체계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된다면, 많은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 청빙위원회의 구성

청빙 과정 전반에 걸쳐 작동할 의사 결정 체계가 수립되고, 교회의 미래와 목회자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교회의 미래상이 결정되고 청빙할 목회자상의 요건이 정리되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때로 청빙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 교회의 미래와 목회자상에 대한 논의를 주관하기도 한다. 청빙위원회는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청빙 절차와 목회자 청빙의 기준을 포함한 의사 결정 체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전 교인의 논의와 합의가 가능하지만, 청빙과정에서 지원한 후보자들의 개인정보와 현 소속교회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후보자들을 면담하고 조사하여 선발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막중한 책무는 오직 청빙위원회에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당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청빙의 절차를 위해서는 청빙위원회의 구성원은 전체 교인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되도록 다채로운 교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세대, 또는 특정 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진 청빙위원회에서 결정된 목회자 청빙은 나중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과 연령 등에 대한 안배와 함께, 교회에 오래 다닌 기존 교인과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교인 등이 골고루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별과 연령층에 대한 안배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시각이 다를 수 있으며, 60대의 관점과 30대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잘 내면화한 교인과 함께, 얼마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관습에 물들지 않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 교인도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교회의 미래상에 관련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인이나, 이와 유사한 공적 기관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선 작업을 담당할 역력이 있는 교인이 참여하는 것도 보다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청빙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청빙위원회가 구성되면 먼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빙위원들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세미나를 통해 청빙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청빙위원들의 역할, 전체 진행 일정, 다른 교회의 사례 수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청빙위원들의 업무 분담, 일정 설정,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청빙위원들의 기밀 유지 서약과 자료 공개 원칙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기도 해야 한다.

미션스터디와 영성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합의된 교회의 미래와

> 4면에 계속

목회칼럼

목사의 가정

저희 가정은 다섯 식구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큰딸 가은이, 작은딸 가영이, 그리고 막내아들 인이 이렇게 줄줄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큰 아이는 제법 야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도 깊습니다. 둘째는 목소리가 크고 귀염성이 있는데, 요즘 씩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막내는 자기를 ‘아기멍멍이’라고 부르면서 온갖 애교를 다 떨지만, 때로는 막무가내 진상 짓을 합니다.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 매일 집에서 지지고 볶는 게 일상입니다. 세 명이 다 먹성이 좋아서 너무 잘 먹는다고 주위에 소문났습니다. 아빠엄마는 육아에 지쳐서 체력이 방전되기도 하지만 그

래도 아이들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서 크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들이 겪는 일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매일 등교를 준비시키고, 아침에 어린이집을 보냅니다. 매일 아이들을 깨우고,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재웁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함께 뒹굴고, 책도 읽어 줍니다. 지쳐서 곤히 잠든 녀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릅니다.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니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것입니

다. 큰딸 가은이의 이름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작은딸 가영이 이름은 ‘영광에서 영광으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막내아들 인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아이들이 자라서 무엇을 하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니 가능하면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육아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교회 사역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쁜 일, 속상한 일,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 고민과 염려, 무엇이든 함께 나눕니다. 둘이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졌지만 또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꼭 채워지는 충만한 느낌을 받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점 완벽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이런 말이 오고갑니다. “엄마아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애들아, 사랑해~.” **허준 목사**

> 3면에서 계속

목회자 요건에 맞는 청빙 목회자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교회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청빙 목회자의 처우 계획을 수하고, 청빙 절차를 도와줄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청빙위원들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심사 기준을 마련하며, 특별히 면접에서 질문 유형과 담당자를 정하고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이 모든 기준들은 사전에 교회 공동체에 공개되어, 혹시라도 있을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청빙위원회에서는 또한 전체적인 일정을 확정한다. 적합한 목회자를 찾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과 최대한의 시간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후보자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동시에 청빙이 지연될 경우 교인들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일정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좋고, 예상외의 시간이 걸릴 경우, 대처 방안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목회자 청빙 과정에서 후보자의 신상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후보자가 원치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청빙하는 교회에서도 분열이 생길 소지가 있다.

본 단계

준비 단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외부에 청빙을 알리고 선출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때부터는 청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게 된다. 교계 신문

이나 여타 미디어에 청빙 공고를 하고, 단계별 서류-면접 등의 평가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심사한다. 청빙위원회는 공동체에 의해 의결된 원칙에 따른 심사 기준을 만들고 투명하게 선발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청빙 공고를 하고, 1차 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평가 계획을 세우고 심사한다. 그리고 1차 서류 접수된 후보자 가운데 2차 심사항 인원을 선정하고, 후보자들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접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 뿐 아니라 현 재직 중인 교회와 교계의 평판, 설교 자료 등을 참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2차 심사에 올라온 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정하고, 심사 후 최종 2~3인을 선정한 후, 최종 후보자들의 면접 일정을 세우고 심사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청빙위원회는 전 교인이 합의한 교회의 미래상과 목회자상에 근거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사적 관계나 비교회적, 비성서적 명성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청빙위원들에 대한 비밀 보장 원칙이 필요하며, 외부의 압력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청빙위원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최소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교회에 맞는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탐색해야 한다.

결정 단계

청빙위원회에서 최종 1~2인이 선출

되면 운영위원회(당회, 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인 총회(공동의회, 제직회)를 소집하여 청빙 투표를 하게 된다. 교인 총회에서는 청빙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교인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목회자가 결정되면 탈락자에게 통보하고 청빙위원회는 해산된다. 주님의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에는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임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임 단계

운영위원회(당회 등)에서는 부임할 목회자와 부임 일정을 조율하고, 협약식을 맺는다. 목회자 부임 후 상회(노회, 지방회)에 보고해서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취임 예배를 드린다.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일정 요건에 합당하면 위임목사로 위임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청빙의 단계를 개괄하면서, 목회자 청빙의 전체적인 절차와 청빙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알아보았다. 모든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진행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청빙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고, 청빙위원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에 민감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흔히 ‘교회’하면 건물, 조직이나 제도를 생각하기 쉽지만 기독교 신학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로 이해되어 왔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불러 세운 백성의 모임이라는 뜻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음을 믿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재현한다는 뜻이다. ‘성령의 공동체’란 교회의 모든 운영이 사람의 욕심과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힘이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목회자를 모시는 청빙의 모든 과정은 ‘갑’인 교회가 ‘을’인 목회자를 고용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재현하며, 성령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늘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신의 교회가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에 비추어 어느 지점에서 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선행되면서, 동시에 교회의 본래 모습을 찾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청빙의 과정과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기나들이



김유나 아기

2016년 10월 19일생

1.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받은 사랑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언제나 건강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주님 말씀대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3.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빠 김현곤 / 엄마 강신애, 2017년 4월 9일 2부 예배

교회단신

2017년 상반기 입교세례예식

4월 9일 3부예배 시간에 2017년 상반기 입교세례예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총 53명이었다. 함줄함줄

입교자 (총 21명)

장년부 : 김시은, 박상민, 승현희, 이용일, 조건호, 조민호, 최선희 (7명)

고등부 : 나승연, 이병우, 이수빈, 이예현, 이하람, 임다빈, 임수빈, 조수빈, 조현주, 황민지 (10명)

청년부 : 유신영, 유혜정, 홍주희, 홍진희 (4명)

세례자 (총 32명)

장년부 : 강혜련, 구혜진, 김성수, 김세희, 김수영, 민은정, 박정철, 백현주, 성보경, 안혜진, 이광노, 이대한, 이상덕, 이승희, 이지미, 이혜미, 임신재, 조혜란, 주혜리, 최성우, 한희준, 홍승진 (22명)

고등부 : 김석준, 김승현, 유재민, 이영균, 이정연, 정세민, 조동균, 최예은, 최원이, 최인석 (10명)

5월 주님의교회 T.E.D 테드특강

- 지성에서 영성으로(이어령 저) -

한국최고의 지성 이어령의 삶이 폭발을 받은 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학문과 삶의 피어린 삶의 궤적을 통해서 현대지성인의
고뇌, 지성인의 신앙변화를 조명한다.

일시 / 장소 : 5월 7일(주일) 오후 1시, 5층 제1집회실

강사 : 신영백(천로역정의 부모를 저자)

문의 : 남선교회 (010-2684-8320)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고난주간

통곡의 벽

2017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4.10~15) 때에 성도들이 기도문을 적어서 통곡의 벽 틈새에 끼어 넣는 체험을 위해서 1층 로비 왼쪽에 통곡의 벽을 만들었다.

예배부 주도로 교역자들이 제작을 하였으며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수고로 이틀에 걸쳐 만들었다, 2017년 특별새벽기도 첫날에는 참석 성도들께 목걸이 나무 십자가를 걸어주었는데 많은 성도들의 참석으로 이틀날까지 나누어 주는 은혜를 나누었다.

함줄함줄



알립니다

1. 주요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창립 기념 음악회, 성탄절 칸타타 등 특별 음악 예배에 함께 연주할 관·현악 전공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안정수 안수집사(010.5445.5004)

2. 교회창립 기념음악회에 함께 찬양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일시 : 6/21(수) 교회 창립기념음악회(시온찬양대 주관)

신청 : 안내데스크(1층)

문의 : 안성봉 안수집사(010.5383.4030)

3. 10교구 Blessing 모임

일시 : 4/21(금) 오전 10시 30분, 유아부실(1층)

대상 : 10교구 육아중인 엄마들